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12/11 월요일****아침의 누림****롬 5:10, 17**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롬 8:35-37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협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36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빌 3:14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법리적인 방면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법리적인 방면이 있을 뿐 아니라 유기적인 방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유기적인 구원은 로마서 5 장 10 절에 언급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얼마만큼 구원받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5 장 17 절에서 넘치는 의의 선물은 법리적인 구속을 가리키고, 넘치는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 우리가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완결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를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 장, 67 쪽)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 앞에 나와야 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듭거듭 은혜를 받아야 한다. ... 은혜가 우리를 채우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넘치고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뒤에 온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충만이 채우고 우리에게서 흘러 넘칠 때에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은 정복되고 우리 발 밑에 있게 되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들이 된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수록.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은혜로 충만될 때마다. 은혜는 넘쳐흐르고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다음 은혜에 의해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원칙은 로마서 5 장에 계시되어 있지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체험은 로마서 8 장에 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것이다.

교리나 가르침이나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가 은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것은 신성한 근원에 나아가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열어 드리고 은혜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은혜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우리는 모든 절연체와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저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제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계속 열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완전히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곧 직장 안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은혜이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주님께 계속 열어 드리라. ...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결국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와 죽음과 사울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의 체험에서 이 세 가지 원수가 철저히 정복될 것이다.

죄와 죽음과 사탄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근원으로 가서 철저히 자신을 열어 드리고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46 장, 555-5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 1 장; 위트니스리전집, 1970 년, 3 권, 영과 진실함 안에 있는 교회생활. 4 장

12/12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3:5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롬 5:21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계 5:10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마 28:18

18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벤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에서 구원받는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왕들로서 다스리도록 한다. 로마서 5 장 17 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곧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생명 곧 왕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왕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죄들이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을 때 의롭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왕족의,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다. (로마서에 계시된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 1 장, 14-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 신성할 뿐 아니라 왕족의 생명. 왕가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생명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롬 5:17) 생명이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하늘에 신성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린다. ...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롬 5:17). 그것은 많은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

죄와 세상과 사탄과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개인주의를 왕으로서 다스린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왕권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 우리는 반역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때 우리 속에서 죄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 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때로는 죄나 세상을 향해 "멈춰라! 더 이상 오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성질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말한다. "성질아. 멈춰라!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나를 이기려고 하거나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여러분의 성질을 향해 명령하는 것은 참으로 효과가 있다.

반역적인 많은 것들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인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거나 주님께 복종하는 이의 위치를 취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갖게 된다. ...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느낄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민수기 16 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4 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써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께 복종시켰다. 그의 복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상황을 처리하실 수 있었다(23-24, 31-35 절).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통치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 것은 모세의 복종에서 왔다.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을 때, 성경의 그림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넘치는 은혜를 누렸다. 넘치는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총명한 누림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께 복종한다면, 주인께서 오셔서 반역하는 이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반역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통치이지만, 복종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질은 사실상 '반역자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할 때 모든 반역자들은 굴복된다. 여러분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저는 반역자인 저의 성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을 다스린다.(로마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 1 장, 15-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7 장

12/1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37-39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엡 4:23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롬 11:17

17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로마서 6 장부터 16 장까지에 제시된 모든 항목 안에 있게 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연합된 영은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온 일생 동안 내주하시는 영의 도장 찍으심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 곧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린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안에 머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이기는 신부로 조성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4 장, 212-2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롬 6:19,22, 15:16), .. 연합된 영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롬 12:2, 엡 4:23), 주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롬 12:2, 고후 3:18). ... 우리는 그 영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 영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롬 8:26-29). ...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의 도장 찍으심(엡 4:30)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롬 8:30)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23 하절), 궁극적으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도록(23 하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환경적인 곤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며 그분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고(롬 8:31-83).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이며(834 절), 또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었기 때문이고(35-39 절), 우리가 죽기까지(38 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롬 9:18-33, 빌 3:9, 고전 1:30). 우리는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를 얻었다(롬 1:17 상). 이러한 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으로서, 긍휼의 그릇들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9:18-23).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롬 10:13), 주님의 말씀을 믿고(14 절),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15 절) 하나님의 풍성을 누린다(12-15 절).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살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롬 11:17-24 갈 2:20 상). :.. 우리는 야생올리브나무의 가지들인데(롬 11:17, 24) 참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과 하나이신 분(롬 11:24, 시 80:15-17, 마 2:15) 안으로 접붙여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서, 올리브나무(롬 11:20, 17)의 기름진 뿌리(우리를 지탱해 줌 18 절)에 참여한다. 더 나아가, 접붙여진 가지들인 우리와 참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을 함께 살면서 하나로 연합된 생활을 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와 의를 받음으로 성취되며. 이 완전한 구원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결과를 낳는다. 로마서 5 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의 나머지를 여는 열쇠이다. 우리는 이러한 빛 안에서 로마서 6 장부터 16 장까지에 제시된 모든 항목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4 장.210-2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4-6 장

12/1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1-2, 3-5, 11, 15, 18

-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 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 18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 장과 13 장에 언급된 모든 항목들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각 항목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 모든 항목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롬 12:1)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롬 12:2).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통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할 것이다(롬 12:3 하). 우리가 자신에 관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마치 야생마와 같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생각에 고삐가 채워진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5 장, 21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집사들과 여집사들이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특정한 봉사에서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롬 12:7 상).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치고 권유하며 단순하게 나누어 주고 부지런하게 인도하며 즐겁게 공물을 베풀 수 있다(7 하-8 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우리는 서로 먼저 존경할 것이다(10 하절).

로마서 12 장 9 절부터 21 절까지는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들을 사는 생활에 관한 단락이다. ... 몸의 생활을 위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가능하다. ...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서 생활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을 지니고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몸의 생활이 실행적인 실재로 건축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이다.

로마서 13 장은 몸의 생활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몇 가지 부가적인 방면들을 제시한다. . 오직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삶으로써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권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에 행하듯(롬 13:13) 깨어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한가지 결과는 잠에서 깨어나 경계하며 조심하게 되고, 이 시대로 인하여 잠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고 육체의 일을 꾀하는 이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낮에 행하듯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번째 옷으로 입어야 하며(시 45:13-14),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분을 살고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공급이신 하나님 자신)와 의의 선물(실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생활할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지적인 몸의 생활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5 장, 219-221 쪽)

바울은 교회생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라고 간청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몸보다 더 참되고 실지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의 몸을 교회생활 안에 두지 않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교회생활을 위하는지 부디 말하지 않기 바란다. ...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5 장, 381-83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4-6 장

12/15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16:16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전 10:16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4:4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계 1:11

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일 1:3, 7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위해 교회생활을 하는 본을 세웠는지를 보아야 한다(롬 15:14-16:27).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의 본에서 첫 번째 항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롬 15:14-24), 그런 다음 그들을 유대인 교회들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사랑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롬 15:25-33)

로마서 16 장 1 절부터 24 절까지에서 바울은 추천하고 문안함으로써 그의 사역 아래 있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함께 섞이게 했다. 이것은 우주적인 몸의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 오늘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규제받고 제한받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6 장, 228-2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한 몸, 곧 우주적인 한 교회는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이루어진다. 수천 개의 지방에 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한다.

에베소서 4 장 4 절에서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몸이 그 영 앞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가 몸과 관련이 있고 또 몸을 위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절은 몸이 유일하다는 것을 계시할 뿐 아니라, 한 몸이 한 영께 달려 있다는 것도 보여 준다. 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한몸이 있는 것이다. ... 몸과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유일한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영은 한 몸의 본질이다. 그 영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몸은 공허하고 생명이 없다. 에베소서 4 장 4 절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그 영이다. 그러므로 몸과 몸의 본질은 하나이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몸이 있다. 더욱이 몸 안에 오직 하나의 생명의 순환, 즉 하나의 교통이 있다. 이 순환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는 조직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을 뿐이다. ... 모든 교회들이 이 순환, 곧 몸의 교통 안에 머문다면 건강할 것이다.

그러나 타고난 사람의 생각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이들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조직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든 교회들과 교통을 갖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나 어느 특정 권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기꺼이 교통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신약의 결론, 12 권, 교회, 204 장. 187-188 쪽)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생활의 실재이다. 수세기 동안 주님은 교통의 부족으로 인해 좌절당하셨다. 요한계시록 22 장 20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적이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조직을 통해 사람을 통제했다. 그러나 가톨릭교를 버리고 나온 이들도 거둬들이 분열을 일으켰다. ... 사실상 신성한 교통이 믿는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이 교통 안에서 제한받는다. 이 교통 안에서 제한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지켜지고 사역의 일은 계속해서 전진한다.(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17 장. 2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19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298 장

12/16 토요일

아침의 누림**롬 16:1, 3-4, 20**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5: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롬 12:1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빌 2:17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빌 4:18

18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 장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사도는 추천과 문안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롬 16:1-16, 21-24, 20). 로마서 16 장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스물일곱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 각사람을 상당히 잘 알고 이해하며 많이 돌보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한 추천과 문안은 성도들 간의 상호 관심과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몸 안에서 교회들 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6 장, 104-1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관심하는 교통을 앞장서서 시작했다(롬 16:1-19, 21-23). 그는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관심했다. 바울은 이렇게 관심하는 교통 안에 완전히 잠겨있던 형제였다. 로마서 16 장에 기록된 이 모든 상세한 문안들은 그의 관심이 멀리까지 미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나는 로마서 16 장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로마서 16 장의 계시에 따르면, 사도의 이 관심하는 교통 안에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관심하는 교통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들 간에 이루어졌다.

로마서 16 장 1 절에서 바울은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고 말한다. 뵈뵈는 여집사, 즉 섬기는 이였다.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헬라어에서 '후원자'라는 용어는 돕고 격려하며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품위 있는 말이다. ... 바울이 뵈뵈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았는지를 밝혀 준다. 뵈뵈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긴 자매였다. 만일 우리가 교회생활에서 주님께 진심이라면, 우리도 또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를 섬기며 돌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교회를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뵈뵈처럼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교회생활 안에서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의 목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로마서 16 장 4 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교회를 돌보았다. 그러므로 이방 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가볍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리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떤 성도들은 오직 자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만을 돌본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모든 교회들을 위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정한 곳에 두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교회들을 품을 만큼 아주 넓고 광대해야 한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0 장, 397-39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5-27, 30, 46-49 장

12/17 주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12-14, 18-20, 25-27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19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25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에 있는 생명의 구원, 7장

찬송: 947 (英) 난 오늘 훈련해 (中:751)

1 오-늘은 훈-련해 주- 왕국 생활

장래 보상돼 주님과 다스리리
주의 지혜로- 오늘은 훈련 받고
주의 계획을 성취해 공의 이룩.

2 그-날에 주- 위해 통-치하리라
왕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네
우리 주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주의 신성한 왕권을 표현토록.

3 하-나님 권-위에 복-종함 배워
오늘 주님의 다스림 처리 받아
그날 하나님- 권위를 함께 나눠
주와 공동 왕 되어서 다스리리.

4 자-신에 엄-격해 공-의 따르며
다른 이에겐 은혜로 관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늘 즐거워 해
항상 왕국의 실재를 살아야 해.

5 이-렇게 살- 때에 주- 강림하셔
그의 왕권을 상으로 주시리라
우릴 통해 그- 공의를 나타내며
천사들에게 지혜를 보이시리.

6 왕-국을 위-하여 달-린 사도들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했네
우리 또한 이- 왕국을 얻기 위해
충성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리.

7 왕-국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훈련받고 장래 상 얻도록
왕국 실재를- 오늘은 훈련하고
장래 왕국의 실현이 보상 되게.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5:1-33;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6-67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Greetings in the Body Life

Scripture: 로마서 15:1-16:27

Assigned Reading: *The Practical Points Concerning Blending*, chs. 1-5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1232

churchinnyc.org/bible-study